

환율과 전자산업

전자산업연구소

① 원/달러환율 7년만에 최고치

○ 한달사이 7.4% 절상

11월 1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65원을 기록하였고, 11월 15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100원선이 깨어졌으며 4일만에 하락폭이 50원 가까이에 달한다.

10월 초순 1,150원대와 비교해보면, 한달 보름만에 무려 85원이 하락, 환율의 절상률이 7.4%에 이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시장 반응이다.

② 전자산업 수출입 규모

○ 전자산업 수출 규모 1천억불

전자산업의 수출은 금년 976억불, 전년대비 30.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천억불에 근접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2003년은 전년대비 22.1% 증가한 746억불의 실적을 보이고, 전자산업의 수출은 총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주력산업이며, 환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전자산업 수입 규모 5백억불

전자산업의 수입은 금년 511억불, 전년대비 1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규모에 비해 약 절반을 다소 웃돌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전년대비 17.5% 증가한 444억불의 실적이다.

수입은 환율 절상시 환차익의 긍정적 효과를 입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체보다 유리하다.

수입업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으며,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환차익을 볼 수 있으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전자기기류를 수입하는 업체는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려우며, 달러화에 대해 세계 주요국의 거의 모든 통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절상률의 차이는 있다.

③ 전자산업 수출입 효과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차세대 동력원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2차전지는 한번 쓰면 버리는 일반 전지와 달리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반도체, LCD와 더불어 21세기 IT 시장을 주도할 3대 핵심 부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비롯해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법, 또는 전혀 다른 전지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노트북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대형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분야의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④ 기술동향

○ 일시적 수출 증가 가능성

전자기기의 수출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면 조기에 수출하는 것이 환차손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므로 수출 선적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미달러화에 대해 경쟁상대국들인 일본, 대만, EU 등의 환율도 하락하고 있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아니다. 경쟁상대국들간 환율 변동폭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가격의 반영에도 일률적으로 시산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경제상황이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완연하게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회복단계에서는 소득효과가 가격 효과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며,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고도 여유가 있으므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는 계속 활발해지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은 2004년 18.9%, 2003년 19.2%로 저하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대미 수출은 2004년에

184억불, 전년대비 32.1% 증가할 것이며, 2003년 144억불,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 전자산업의 수출 위축

미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수요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며, 미국의 경기하락은 세계경기와 한국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국산 전자기기의 수출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채산성 악화되면 수출을 포기하거나 대체품목을 모색하는 등 수출다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수출이 내수 판매보다 채산성이 높을 경우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양대 전자메이커가 전자산업의 수출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350억불, LG전자 150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양대 전자메이커는 수출 드라이브정책 추진하고 있다.

④ 수출 전자기업 10조원 환차손

수출 전자기업은 수출로 인해 10조 8천억원 환차손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전자산업의 수출을 1천억불, 환율하락분 90원으로 가정하면 1년 동안 10조 8,000억원의 환차손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④ 수입 전자기업 5조원 환차익

수입 전자기업은 전자기기류의 수입으로 인해 연간 5조 4천억원의 환차익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전자산업의 수입을 5백억불, 환율하락분 90원을 가정하면 1년 동안 3조 6,000억원의 환차익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④ 전체 전자산업 5조 4천억원 손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자산업의 수출입에서 볼 때, 전자산업의 수출에서 나온 환차손에서 전자산업의 수입에서 나온 환차익을 마이너스하면 5조 4천억원의 환차손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도입료 등 특허료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보다는 기술 도입이 크기 때문에 실제 전자산업에서의 환차손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특허료 등 지불액은 20억불인 반면, 기술 수입액은 7억불에 불과하다.

④ 내수시장 경쟁 격화

수출 전자기업들은 수출 할수록 환손실 발생으로 인해 수출보다 내수시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수출선의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으로 전환이 쉽사리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다.

근간 내수시장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용 전자기기들이 내수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내수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④ 미국산 고급 전자 수입 증대

고급 외산 전자제품의 국내가격이 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가전기기류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국산이 외산보다 월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에 있어서도 압도적이다.

미국산 전자기기의 수입업체들은 원달러 환율하락의 메리트를 누릴 수 있으나,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전자기기는 별다른 환율 영향이 없다.

④ 생산성 향상 강화

환율변동은 금융시장의 현상이므로 실물시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제품 출시 또는 신개발 개발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은 과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때 품질의 개선, 신제품의 개발, 해외 공장의 생산 증대 등으로 엔고를 극복한 바 있다.

④ 환율도 사업의 축

전자메이커들은 통상 환율보다는 제조에 치중하여 왔으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와의 수출입이 보다 빈번하여 지고 있는데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환율도 하나의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환율의 변동은 메이커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세계적인 머니게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④